

ISSUE & FOCUS

Newsletter 2017-9(2)

한가위 즈음에 부치는 글: 한선재단의 다짐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민족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정부의 결정으로 열흘간의 긴 연휴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선진화재단을 사랑해주시는 회원님 여러분,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목요일 그러니까 9월 21일은 한선재단 창립 11주년 행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지난 날의 성찰과 내일을 향한 도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 날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한선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고, 박재완 이사장께서는 “보수의 반성과 우파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셨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공(功)이 있는 보수는, 그러나 권위주의적 통치로 민본 민주주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과(過)도 함께 가진 존재입니다. 박 이사장이 지적한 대로 경제자유화, 실사구시의 중도실용, 사회통합 등 보수 본연의 가치에 더욱 충실하지 못했기에 좌파원리주의 세력에 정권을 빼앗기고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제 11살의 한선은 정통보수 본연의 가치

에 매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힘들고 먼 길일지라도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다진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진보는 진짜 진보가 아니라 포퓰리즘에 빠진 좌파원리주의자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보수는 진짜 보수가 아니라 보수를 참칭한 계파패권주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염려하는 구국세력은 이들 두 가짜의 틈에서 선택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선재단이 더욱 분발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정통보수의 답을 내 놓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을 위해 포퓰리즘과 패권주의 모두를 극복하고 자유와 공동체의 가치를 고양해 나가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보수의 가치는 자유와 공동체입니다. 자유는 다시 두 가지 하위개념으로 나뉘는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의 자유를 지키는 시장경제가 그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역시 다시 두 가지 하위개념으로 나뉘는데, 외적(外敵)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강력한 국방·안보와 내적(內賊)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법질서·법치주의가 그것입니다. 그동안 정통보수의 가치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면이 있지만, 좌파원리주의의 등장으로 다시금 정통보수의 가치가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좌파원리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 대신 사회민주주의(자유 보다는 평등), 시장경제주의 대신 정부만능주의(공공부문 81만명 채용), 국방·안보 대신 감상적 민족주의(사드 배치 지연), 법치주의 대신 대통령지시주의(탈원전, 비정규직 제로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식인 중에는 “보수와 진보가 뭐가 다른 게 있다고 맨날 다투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피터지게 논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정책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크게 다르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명운을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진보가 정통좌파의 정책에 보수의 정책을 덧칠한 제3의 길을 모색했기에 보수와 진보의 정책차이가 그리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식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좌파원리주의 정책을 제대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좌파원리주의자들이 생경하고 극단적인 좌파정책을 펴고 있어서 그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보수의 가치를 분명히 한 다음에는, 정책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자리부터 출산, 육아, 은퇴에 이르는 생애주기별로 포퓰리즘이 판을 치지 않도록 하는 우파 정책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한번 주면 돌이키지 못하는 분배 위주의 정책으로 모두가 같이 가난해지는 좌파 정책이 아니라,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여 모두가 같이 부유해지는 우파 정책을 정립하고 발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들께는 “내가 가난한 것이 부유한 옆집 때문이 아니다”는 걸 인식시켜야 하고, 결과의 평등의 아니라 기회의 평

등이 정의로운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감상적 민족주의에 빠져 많은 국민과 대한민국의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국방·안보태세를 갖추고 힘과 의지로 압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통일의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정부정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좌파원리주의에 대한 설명도, 단 한 번에 국민들을 납득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건강한 정통보수에게 주어진 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교보문고 매대에 올라 있는 책의 70-80%는 좌파 지식인이 쓰거나 번역한 책이라고 합니다. 지식생태계를 좌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객을 동원하고 있는 영화의 상당수는 팩트에 기초하기 보다는 이념적 편향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학계와 노동계는 물론 문화예술계와 언론계 등 모든 분야에서 좌파원리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파는 무엇을 했는가’ 자문해야 합니다. 한선재단을 포함한 우파 지식인부터 그동안 많이 게을렀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가 싸우는 오케이목장의 결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선재단이 건강한 정통보수의 복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선재단 3만 명 회원님들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셔야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지킨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공동체로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공부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고, 널리 알리고 설명하고 쌓아가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가위 긴 연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고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